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독자 연구

김동윤*

목 차

1. 머리말
2. 1950년대 독자들의 신문소설 인식
3.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독자 참여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1950년대에 이르러 영화와 대중가요 등의 대중문화가 새로운 면모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중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은 문학양식이 신문소설이었다. 이 시기에는 신문소설이 상당히 두터운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문예지의 소설들은 지면이 한정되고 독자층도 상대적으로 얇았던 것이다. 그만큼 신문소설이 1950년대 상황에서 다른 어느것보다 독자에게 친숙한 문학이자,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1950년대 신문소설 독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신문소설을 많이 읽었던 이유가 단지 단행본 출판이 어려웠던 상황 때문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작품이 주로 신문에 연재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은 없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독자로 인해 작품의 내용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는가 하는 점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를 좀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면서 그들이 당시 신문소설의 형성과 유통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설의 사회적 역할은 독자를 통해서 비로소 구현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독자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절실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독자에 비중을 두고 문학 현상들을 논의해 나간다면 우리 소설사에서 신문소설에 대한 비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더욱 당위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한 가지는 1950년대 독자들이 신문소설을 어떻게 인식·수용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사회학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독자 참여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다. 독자참여의 양상은 신문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바, 이는 신문소설의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도 된다. 독자 참여에 관한 논의는 독자의 기대지평 등과도 관련되는 수용미학적 논의라고 할 수 있겠다.

2. 1950년대 독자들의 신문소설 인식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이는 우선 식자층의 급증에 따른 독자층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50년대는 학교 학생수, 교원수, 취학률 등에 급격한 성장을 보인 시기였다. 1940년도의 취학률이 31.75%였으나 1945년도에는 64%, 전쟁 직전에는 81.8%로 급증

1) H.R.아우스는 문학사에 있어서 독자를 빼뜨릴 수 없는 일차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작가와 작품을 연대별로 늘어놓은 문학사는 일반사도 문학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독자는 문학사 내에서 '중재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용과 영향을 문학사 기술의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아우스아말로 문학 연구에 있어서 독자의 위상을 격상시켜 놓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수용미학 이전에 독자에 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독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문학소비자로만 파악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H.R.아우스,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문학과지성사, 1983) 참조.)

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취학률은 1954년에는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60년에는 95.3%에 이르렀다.²⁾ 결국 1950년대에는 해방 직후 어떤 정책보다도 선행해서 이루어진 의무교육제도의 보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의 영향으로 식자층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적으로 신문의 독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신문 독자가 늘었다는 사실은 신문소설의 독자가 많아지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에는 신문들의 지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점 또한 신문소설 독자층의 확충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50년대에서 각 신문의 증면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55년 1월에 각 신문들은 2면에서 4면으로 증면되었고, 1958년 후반에는 6면으로 증면되었다. 1959년 전반기에 이르러 각 신문기업들은 조·석간 8면을 발행하였다.³⁾ 이러한 신문의 증면에 따라 신문사들은 소설을 연재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각 신문들의 증면으로 인해 연재소설은 신문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수요량도 부쩍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제까지 藝術小說 부분에 머물던 사람들까지도 신문소설에로 대량 진출해 갔”⁴⁾던 것이다.

아울러 신문사측에서는 신문소설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自由夫人」의 놀라운 대중적 반향을 접한 이후 신문의 經營主측은 새삼 신문소설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기왕의 연재소설을 심분 활용해 販賣高를 올려 보자는 계산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제 신문사측은 아예 신문연재소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自社 발행 신문의 販賣高 신장이라는 등식을 내세우게 되었다.”⁵⁾ 신문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각 신문사 측에서는 독자에게 그날 그날 자사 신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유인책을 주로 연재소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소설이 활용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문사측이 노골적으로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재미있는 소설을 작가에게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설은 연재 도중에 중단되는 일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신문사측의 상업주의 전략 역시 신문소설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 139쪽.

3)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104~106쪽.

4) 정태용, 「신문소설의 새로운 영역」, 『사상계』(1960.4), 268쪽.

5)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7쪽.

이처럼 1950년대에는 의무교육의 실시로 대중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신문지면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신문의 상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점들은 신문소설의 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 독자들은 신문소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신문소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특히 新聞小說은 每日 數 많은 讀者에게 接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社會的인 影響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廣範圍하고 큰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社會的인 影響이 큰 藝術의 하나로 映畫가 登場되고 있는데 그것은 新聞小說에 비하면 그 社會的인 影響이 역시 新聞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推測된다.

왜냐면 아직도 映畫는 都市中心으로만 興行되고 있고 比較的 高價한 觀覽料가 必要하기 때문에 新聞만큼 廣範圍한 地域으로 繼續的인 影響力을 社會에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 新聞小說의 連載가 完了될 때까지는 적어도 六個月 정도 씩 되니까 그 동안의 料금이 映畫의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으나 新聞은 連載가 完了되었을 때만 影響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繼續的으로 影響을 끼치는 것이니까 역시 新聞小說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接觸되고 影響을 주는 藝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 영화가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 영향력에서는 신문소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영화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만 흥행되고 관람료도 비싼 한계가 있었던 데 비해 신문소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대에 가장 쉽게 대중들이 접촉할 수 있었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예술양식이 신문소설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이었으니 상대적으로 신문소설의 위력이 대단했을 법하다.

이보다 2년 앞서 있었던 조사에서도 역시 1950년대 신문소설의 인기가 대단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덕은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신문소설 구독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梨花女大 二百五十 名의 學生들에게 輿論調査(四二九〇年 六月 十四日 現在)한

6) 김우중, 「신문소설의 사회적 영향—작가의 태도가 문제」, 『동아일보』(1959.8.1).

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今日를 基準해서 六箇月 동안에 新聞小說을 읽은 學生은 文科 理科를 합쳐 九十五 퍼센트에 達하고, 單行本 小說 讀者는 文科系 學生이 六十四퍼센트, 理科系 學生이 四十퍼센트 좀 未達이었다. 今年 들어 새로 單行本 小說冊을 사서 본 學生은 文·理科를 합쳐 不過 十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大概是 그 前에 出版된 것을 使用하거나 圖書館에서 본 것이었다.

2, 六月 現在 新聞小說을 읽는 讀者(文·理科 합쳐)는 六十五 퍼센트였고, 單行本 讀者는 文科系 學生이 五十六 퍼센트가 넘으며, 理科系 學生은 十 퍼센트에도 未達이었다. 六月 中에 單行本 小說책을 새로 사서 본 學生은 文·理科 學生 합쳐서 五 퍼센트 程度였다.

3, 學生들을 통해서 그들 家庭에서 新聞小說을 읽는 讀者를 間接的으로 輿論調査한 結果 六箇月 동안에 九十 퍼센트에 이르렀다.

앞의 輿論調査에서 나타난 統計와 같이 約 半年 동안에의 新聞小說 讀者는 新聞을 읽는 사람이면 거의 다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며, 또한 小說讀者의 九十 퍼센트 以上の 사람이 新聞小說을 읽는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이 統計에 나타난 現實을 생각컨대 低俗한 官能的인 新聞小說이기 때문에 讀者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一面 單行本 讀者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出版界의 不振과 購買力의 貧困 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리의 生活이 娛樂이 적은 탓으로 新聞小說로 쏠리는 面도 생각하여야만 될 것이다.⁷⁾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신문소설 독자가 단행본 독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신문소설을 읽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독자들이 신문소설을 많이 읽는 이유는 ① 출판계가 부진하고, ② 구매력이 빈곤하며, ③ 생활의 오락이 적은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파매체의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실정에서, 그리고 출판계의 활동이 부진하고 그에 대한 구매력이 빈곤한 실정⁸⁾에서 보면, 당시에 생활 오락의 수단으로 신문소설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

7) 김영덕, 「신문소설과 윤리」, 『자유문학』(1957.7), 141쪽.

8) “오늘날 한국의 문예작품은 단행본과 대중지와 전문지와 그리고 신문의 문화면을 통해서만 발표의 가능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행본 발행은 출판 경기의 저하로 말미암아 부진상태에 있거나 목하 가장 많은 발표지면을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문화면이다.”(김내성, 「신문소설의 형식과 그 본질」 『현대문학』(1957.2), 61쪽)라는 진술을 통해서 보면 출판계가 부진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신문소설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1950년대의 신문소설은 당시 인기가 급상승하던 영화보다도, 그리고 단행본 소설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소설이 인기리에 연재되던 현상은 1970년대 초반에도 어느 정도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1972년 제16회 신문의 날 기념으로 『경향신문』이 1292명의 독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향신문의 어떤 면을 가장 많이 읽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연재소설이 24개 항목 중 9위로 나타나고 있다.⁹⁾ 『조선일보』에 연재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1972.9.5~1973.9.9)은 1970년대에 인기를 모은 대표적인 신문소설이었다. 신문소설이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최근의 실상¹⁰⁾에 비한다면 1950년대의 신문소설의 위상이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50년대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문소설의 독자가 많았다¹¹⁾고 한다.

당시 신문소설의 작중인물을 통해서도 신문소설 독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자유부인」(정비석, 『서울신문』 1954.1.1~8.6, 215회 연재)의 주인공 <오선영>이나 「계절의 풍속도」(이무영, 『동아일보』 1958.11.1~1959.7.15, 255회 연재)의 주인공 <송자옥>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이 짐작된다.

① 오선영 여사는 황홀한 감정이었다. 자기는 신문이라면 소설이나 가정만 기사를 심심풀이로 읽을 정도였는데, 한태석은 거기서 사회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자유부인』 63회)

② “그렇잖아도 오늘 마침 웬 친구가 와서 요새 소설은 날라두 다방 아니면 명동 거리 아니면 술집만 나와서 실증이 나온다구 불평만 늘어놓고 갔답니다. 하기는 소

9) 오인문,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찰」, 김우중, 「신문소설과 상업주의」,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336쪽.

10) 1997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50년대의 신문소설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를 대비해 볼 수 있다. 1997년 3월말 (주)리쿠르트가 대학 4년생 1495명을 대상으로 '대학 성신문구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문의 고정란을 보는 우선 순위는 사설이 37.8%로 가장 먼저였고, 칼럼 22.9%, 만화 18.3%, TV프로그램 5.6%, 증권시세 2.7%, 날씨 1.3%, 연재소설 0.7%의 차례였다(『리쿠르트 Times』 120호(1997.4.7)).

11)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도 신문소설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는 조사가 있다. 1958년 일본신문총회 조사 발표한 자료에는 신문소설을 읽는 순위가 24개 항목 중 농촌에서는 3위, 중소도시에서는 5위, 대도시에는 10위로 나타나고 있다. 오인문,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찰」, 김우중, 「신문소설과 상업주의」, 강현두 편, 앞의 책, 336쪽.

설가들두 답답은 할 꺼라. 연애하는 사이니 한두 번두 아니구 어디 끌구 다니겠소? 종로 내거리서 이야기도 시킬 수 없으니까 좀 조용한 데루 끌구 가자니까 창경원이 나 덕수궁 아니면 다방이지! 그 사람네두 딱하긴 딱할 꺼야.”

“그때 모두들 들키나 보죠?”

그실 송 여사는 신문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건만 안대식 박사는 또 뜨끔해진다. (『계절의 풍속도』 178회)

①에서 <오선영>은 신문에 실린 여러 정보들 중에서 가정란 기사와 함께 소설을 주로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선영>은 대학(여자전문)을 나온 30대의 여성이며 대학교수의 부인인 바, 그에게도 신문소설은 소일거리 정도이지만 주된 읽을거리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신문소설의 주된 독자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화여대생에 대한 조사에서 보았듯이 여자대학생들도 신문소설을 많이 읽었음을 확인했거니와, 신문소설의 주된 독자층은 대학생과 중산층 이상의 가정주부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보』가 1956년 박학성의 「고개를 넘으면」을 연재하고 나서 독자평을 공모하였는데, 그 투고자의 대부분이 학생층 또는 가정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해 준다.¹²⁾ 여성들이 대중소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독자가 자신의 생활경험과 연관된 문제나 욕망을 대중소설들이 전해주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대중소설 읽기는 여성독자들의 심리적 욕구의 확인과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¹³⁾

②의 <송자옥>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마흔 살 전후의 여성이다. 역시 신문소설의 경우 중산층 이상 여성독자층이 많았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친구를 만나서 신문소설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인용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신문소설이 이야기거리로 등장하고 있음은 그만큼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1950년대에서 신문소설이 직장인들 사이에도 주요 화제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얼마 전 직장에서의 일이다. 식사 때였다. 남녀행원들간에 다음과 같은 한 토막

12) “本紙에 連載되었던 朴花城 作 連載小説 「고개를 넘으면」에 대한 讀者評은 各界各層으로부터 殺到하여 編輯者로 하여금 그 選擇을 困難케 하였다. 여기 紹介하는 것은 그 中의 一部份이며 一변 讀者評의 全體의 特徵은 投稿者가 大部分 學生層 또는 家庭婦人들이었다는 事實이다.” 『한국일보』(1956.5.7), ‘독자평’ 편집자주(註).

13) J.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a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London: Verso, 1987;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한나래, 1997), 233쪽에서 재인용.

의 얘기가 오고간 적이 있었다.

미쓰R “애야 나 어쩔것 못봤다. ××가 그 집을 뛰쳐나온 후 어떻게 돼, 난 그 △△가 능글맞고 참 싫더라.”

미쓰K “○○를 만나게 됐지. 어째 좀 시시해지더라. 이젠 그러다가 ○○와 그저그렇고 그렇게 되겠지.”

미스터 A “거 무슨 얘기들이시지? 어제밤 또 영화구경 가셨됐구만, 무슨 영화를 보셨지요.”

미스터 C “이 친구 무식하군. 거 왜 ○○일보에 나오는 신문소설 얘기 아니야. 그거 뭐 재미 있어요. 우리는 원 그런 것엔 도무지 취미가 없어놔서, 최고급품 택시나 타고 돌아다니면서 먹구 마시구 춤추고 입이나 맞추구 하는 품이 외국영화 찌꺼기 같은 게, 재미있기는 삼국지(三國志演義)가 더 볼만하지. 며칠 전부터 제갈공명이 나오게 되더군.”

미스터 P “신문소설도 소설인가 그건 예술이 아니야.”

직장에서 한가로운 한때 교환되는 잡담의 중심은 아무래도 영화 얘기가. 그 중 신문의 연재소설도 한몫 끼인다. 이걸 그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을 선량한 풍속(風俗)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도 대중 일반독자의 반응이 일단면(一斷面)을 볼 수 있겠다.¹⁴⁾

위의 일화를 예시해 보인 서재관은 인용문 다음 부분에 “신문소설의 독자란 20세를 전후한 연소(年少)한 세대, 그 중에서도 여성층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대와 여성독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반드시 신문소설의 경우에만 해당되었겠느냐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신문소설만이 아니라 문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문학의 주된 독자층을 젊은 세대와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때, 신문소설의 독자층에 젊은 세대와 여성이 많았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세대나 성의 편중이 본격소설에 비해 다소 많았다는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학교수들도 신문소설에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도 인기 신문소설의 내용을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정비석과 지상논쟁을 벌인 황산덕의 회고¹⁵⁾에 따르면 교수들이 휴게실에 모여 신문소설 내용을 두고 흥분하는 일도 있었다. 엘리트들이라고 해서 신문소설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아님

14) 서재관, 「신문소설에 불평 있다—애정·애욕도 깊이 탐색하라」, 『현대』(1958.4), 66쪽.

15)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문리대에도 출강했는데 하루는 강의 끝나고 휴게실에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 독자들은 신문소설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과 같은 당시 문화면 편집자의 말에 비추어보면 그런 점을 파악할 수 있다.

鄭飛石 作 「浪漫列車」가 連載되는 동안 編輯者는 讀者들로부터 이 小說에 대한 많은 批評을 入手하였다. 어떤 家庭夫人—學校에 다니는 많은 子女들을 그는 가졌다고 말하였다—은 이 小說이 子女教育에 有害한 것이라고 憂慮하여 「한국일보」 購讀을 中止하였다고 通告하여 왔다. 어떤 女人은 鄭飛石 氏가 果然 韓國 唯一의 大作家라고 激讚을 아끼지 않았다.¹⁶

신문소설이 독자들의 생활의 영역에 깊이 잠식하여 희로애락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신문소설의 내용에 따라 독자들이 극찬하기도 하고 신문 구독을 중지하기도 하였다는 언급은 신문소설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독자층을 보면 중산층 여성독자들이나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대학교수 등 엘리트들도 신문소설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전후(戰後) 한국 사회에서 신문소설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대중들에게 ‘생활의 오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에 견주어 말한다면 텔레비전 일일연속극과 유사한 기능을 1950년대 신문소설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독자 참여 양상

‘독자 참여’가 두드러진 점은 ‘시사성’, ‘단절기법’ 등과 함께 신문소설의 주된 특성의 하나다.¹⁷ 신문소설에서의 독자 참여는 작가가 독자의 요구와 제안, 비

들르니 교수들의 화제가 「自由夫人」이었어요. 특히 高承濟·尹世元 두 분 교수가 흥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대학교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참에 「自由夫人」이 대학교를 주인공으로 해서 더욱 조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 정비석·황산덕, 「그때와 오늘, 세대 30년을 말한다」, 『서울신문』(1984.11.22.).

16) 『한국일보』(1956.12. 2) ‘독자들의 독후평(讀後評)’ 편집자주.

17) ‘시사성’과 ‘단절기법’에 대해서는 임성래, 「신문소설의 입장에서 본 ‘혈의 누’」, 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6);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태학사, 1995);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9) 등을 참조할 것.

판과 격려 등을 수용함으로써 작품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사이버문학과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독자가 소설의 흐름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독자를 의식하고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가 전작장편이나 문예지·잡지 연재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기리에 연재되는 소설일수록 독자 참여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는 결국 독자의 개입에 따른 독자와의 타협을 의미한다.

신문소설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독자의 반응을 수용하는 비교적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 양식이다. 월간지나 주간지에 게재되는 장편도 연재물이긴 하지만 신문소설에 비해서는 독자의 반응에 대한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신문소설은 그 내용까지도 독자들의 참여에 의해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말봉의 「푸른 날개」(『조선일보』 1954.3.26~9.13, 161회 연재)인 경우 독자들의 참여로 작품 내용에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는 증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겠다. 작품 속에 나오는 권상오의 부인 탄실의 존재에 관해서다. 이 소설이 1954년에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을 때, 매력 있는 주인공 권상오가 총각이 아니라 북에 두고 온 부인이 있으며 그 생사를 모르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자 많은 독자들로부터 탄실을 동정하면서 한영실과의 결합을 맹렬히 비난하는 편지와 전화가 빗발치듯 날아왔다고 한다.

특히 탄실을 권과 꼭 다시 결합시키라는 여론이 끓어 작가도 당황하며 탄실이란 인물을 잠시 등장시켰다고도 한다. 탄실의 등장은 오히려 분단의 아픔과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심화시켜 준 셈이다.¹⁸⁾

「푸른 날개」는 여학교 교사인 <권상오>가 주변의 여러 여인들 속에서 애정 갈등을 겪다가 결국 <한영실>과 맺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면, 작가는 애초에 <탄실>이라는 여성을 직접 등장시킬 의도가 없었는데 독자들의 비난과 항의 등 여론에 따라 그녀를 작중인물로 등장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주인공 <권상오>에게 이북에 두고 온 부인이 있다는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표면화된 것은, 즉 독자들이 그 사

18) 윤경남, 「'푸른 날개'와 그림자」,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종로서적, 1986), 89~90쪽.

실을 알게 된 것은 <권상오>가 여러 여인들 틈에서 고향의 후배인 <한영실>과의 애정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갈 무렵이다. 이때 작가는 그 둘의 결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권상오>가 이복에 두고 온 부인인 <오탄실>의 존재를 비로소 노출하였던 것이다.

③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복 계신 부인이 나타나 보세요. 그 때는 두 분은 따뜻한 가정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그때 저 자신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영원히 만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권상오는 차를 두어 모금 마시고

“나타날 리도 없지만 나타난대도 나는 안 만날 작정이에요. 벌써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권상오의 미간에 짙은 그늘이 서리는 것을 한참 바라보던 영실이

“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그이와 결혼할 때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거, 난, 다 알고 있어요……. 삼년이나 기둘려서 맺어진 부부가 아니에요? 탄실 씨 부친의 승락을 받기까지 당신의 인내…….”

(……)

“만약에 탄실이 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탄실이 죽어 백골이 되었다면?”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죽었는지 눈이 새파랗게 살아있는지 누가 판정하겠어요?”

(……)

“주검보다 더한 삼팔선 장벽이 있는 이상 탄실이의 생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푸른 날개』68회)

<한영실>은 <권상오>를 사랑하지만, 그에게는 자신도 잘 알고 지내던 전처가 이복에 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구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연애소설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의 장치였던 셈이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독자들을 다소 영똥하게 자극하였고, 급기야는 작가가 처음에 구상한 작품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작가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오탄실>을 등장시킨다. <오탄실>은 얼굴에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진 <미스 현>을 우연히 목격하여 병원으로 수송하다가 <권상오>의 청첩장을 보게 되어 그의 결혼식장에 찾아간다.

④ 웨딩마치에 발을 맞춰 신랑과 신부는 일사불란의 자세로 주례자를 향해 걸어 간다. 탄실의 눈을 덮었던 안개가 차츰 사라진다. 권상오의 성큼한 다리가 푹푹히 보이고 떡 벌어진 어깨, 아아— 꿈에라도 그리웁던 저 눈, 저 이마—

“저이가, 내 남편인 저이가 방금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하고 있다”

탄실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 고향이라도 쳐서 권상오의 아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여보 권상오 씨! 나 탄실이외다.”

옆엿 사람이 혀를 차고

“웬 사람이 이렇게 실례스럽게 굴어?”

(……)

“여보! 내래 죽지 않고 살았수다래!”

탄실은 힐끗 돌아보는 권상오 곁으로 저벅저벅 걸어간다. (『푸른 날개』 152회)

〈권상오〉와 〈추백련〉의 결혼식은 거행되지 못하고 〈권상오〉는 〈오탄실〉과 함께 고향 아주머니를 찾아간다.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오탄실〉이 죽고 〈권상오〉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추백련〉은 〈권상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떠나고 〈한영실〉이 그와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이 작품에서 만약에 〈오탄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작품의 양상은 뭘 달라졌을 것이다. 〈오탄실〉의 등장으로 인한 갖가지 일화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니, 〈권상오〉가 〈한영실〉을 비롯하여 〈미스 현〉·〈추백련〉·〈윤지순〉 등과 애정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더 많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유한부인(有關夫人)들의 댄스바람 등을 그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 비석의 「자유부인」에서도 독자의 반응에 따라 소설의 흐름에 변화를 보였음직한 흔적을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부인」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작품의 흐름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대 법대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이란 제목의 글¹⁹⁾을 통해 「자유부인」이 대학교수를 모욕하는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있었다. 황산덕은 “수억 인의 원성을 개의치 않고서 자기 고집을 부리던 스탈린의 흉내를 내면서 수백 명의 대학교수와 수천 명의 그 가족과 수만 명의 대학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의 非難聲 쯤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배

19) 『대학신문』(1954.3.1).

짱”이냐고 따졌다. 이러한 황산덕의 공개비난문이 나오자 정비석은 황 교수의 글이 문학자들을 모욕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문 「탈선적 시비를 박(駁)함」²⁰을 쓴다. 그는 작품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난한 점, 유명해지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모욕적 언사를 한 점, 감정적 흥분으로 일관한 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첫번보다 더욱 격렬한 내용의 반박문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²¹를 발표했다. 그는 「자유부인」은 문학작품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는 “야비한 인기욕에만 사로잡히어 예로 작문을 희롱하는 문화의 적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정비석을 몰아부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홍순엽 변호사가 작가를 변호하는 내용의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²²을 『서울신문』에 기고했다. 그 글의 요지는 황 교수가 정비석을 비난하는 태도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대학신문』에는 문학작품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따지는 백철의 글이 실렸다.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²³라는 이 글은 양쪽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황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를 문제삼느냐고 따진 부분에 대해 “대학교수 가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말을 했는가 하면, 작품 「자유부인」에 대해서는 인물과 환경의 필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사에서 유례가 드문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자유부인」은 더욱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작품을 발표한 지 30여 년이 지난 1985년에 쓴 글에서 작가 정비석은 당시 이 소설을 둘러싼 논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어느 대학교수로부터, 「자유부인」은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치 경제계의 인사들로부터 「자유부인」은, 북괴의 사주(使囑)로 남한의 부패상을 살살이 파헤치는 이적소설(利敵小說)이라고 규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나는 집필 중에 시경(市警), 치안국, 특무부대 등등, 온갖 수사 기관의 취조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지 못할 희극이었다. 「자유부인」을 연재한 신문이 국가의 기관지인 「서울신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소설을

20) 『서울신문』(1954.3.11).

21) 『서울신문』(1954.3.14).

22) 『서울신문』(1954.3.21).

23) 『대학신문』(1954.3.29).

끝까지 연재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 독자나 대중들은 '어느 누가 무슨 박해를 가하든 간에 조금도 굴하지 말고 용감하게 써 나가라'는 격려의 편지를 수없이 보내 주었다. 여기에 힘입은 나는 날마다 빗발치듯 쏟아져 나오는 협박장과 위협 속에서도, 나 자신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집필을 계속했던 것이다.²⁴⁾

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자유부인」은 작중인물들과 관련된 사회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혹명을 받았지만,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호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두 부류가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층의 경우 자신들의 처부를 드러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경향이 많았다면, 일반 대중들은 '보복적 쾌락심리'를 느꼈기 때문에 호응이 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빠듯하여 일부 특수계층의 타락상을 더러 풍문으로 듣기는 했지만 별로 쾌념치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 소설을 통해 구체적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자 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들은 이 소설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런 특권계층의 위선적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이 속속들이 드러날 때마다 야릇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이는 일종의 '권위 깎아내리기'에서 오는 즐거움으로서 작가가 은근히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아울러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유부인」에서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즉, 일반독자들이 '정서적 연대감(affective alliance)'을 형성했다는 말이다. 특히 작중인물 <오선영>은 일반대중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정서적 연대감을 적극 유도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독자들은 「자유부인」에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과 다른 듯하면서도 호기심이 끌렸을 것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대중문학은 일상 삶에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금지되어 온 영역을 통제된 방식으로나마 조심스럽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상의 세계를 통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로 악역을 맡은 인물들의 대리행위를 통해 독자들은 문화적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²⁶⁾는

24) 정비석, 「작가의 말」, 「자유부인」1(고려원, 1996), 7~8쪽.

25) 김창식, 「신문소설의 대중성과 즐거움의 정체」, 「대중문학을 넘어서」(청동거울, 2000), 243쪽.

26) 카웰티(J.G. Cawelli),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동연, 1994), 107쪽.

논리와 일치한다. 작가는 이러한 독자의 경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이 작품의 전개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장태연>이 점점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가는 것은 황산덕 교수의 공개비난문 같은 문제 제기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선영>의 외도 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의 남편인 <장태연>의 일탈은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도 논쟁의 영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선영>은 옆집 대학생 <신춘호>와 춤을 추고 포옹하고 키스하는가 하면 유부남 <한태석>과 호텔에까지 드나드는 애정행각을 벌이지만, <장태연>은 <박은미>와 영화를 보고 식사하고 함께 거닐거나 선물을 받고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 후반부에 가면 그러한 <장태연>의 이성 문제로 인한 심리적 동요는 아예 사라져 버린다.

특히 작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국회 공청회장에서의 <장태연>의 당당한 모습은 황산덕 교수 등과의 논쟁을 의식한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 작가가 처음 부분에 장 교수를 묘사한 부분(⑤)과 공청회장에서의 모습을 묘사한 후반부의 장면(⑥)을 비교해 보면 그런 점이 확인된다.

⑤ 장교수는 (……) 문득 곤색 스카아트 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은미의 하얀 종아리가 눈에 띄이는 바람에 벼란간 가슴이 설레었다.

젖빛으로 뽀얗고도 포동포동 살이 썸, 무척 아름다운 종아리다.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피어나는 것만 같고, 손으로 어루만져 보면 손끝에 분가루가 묻어날 것만 같은 종아리다. 사람의 육체에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 줄은 몰랐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비상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장 교수는 점잖지 못하게 남의 집 처녀 종아리를 잠시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

장 교수는 자못 유쾌한 기분이었다. 장태연 교수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젊은 미인과 단둘이 명랑하게 이야기하기가 유쾌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유쾌하게 웃으면서 다시금 종아리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시선이 자꾸만 그리로 쏠렸다. 장 교수도 역시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모양이다. (『자유부인』 22~23회)

⑥ 장태연 교수는 청중을 굽어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자기 의견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

방청석에서는 또다시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장태연 교수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어디까지나 이로(理路)가 정연하고도 함축성 있는 이론이었다.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권력조차 초개시하는 장교수의 승엄한 태도는 순교자의 그것처럼 비장해 보이기도 하였다.

방청객들도 모두 탄복하는 모양이지만, 누구보다도 경탄한 사람이 오선영 여사였다.(『자유부인』 214회)

⑤의 경우에는 점잖지 못한 속물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⑥에서는 영웅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전혀 다른 인물로 느껴질 정도로 확연히 변화되었다. 교수를 비난하지 말라는 지적들을 작가가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지도층 인물들의 부패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일부 약화되긴 했어도 크게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견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작가의 말처럼 일반 독자 대중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오선영>의 탈선이 최후의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점도 윤리적 측면에서 독자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상당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작가가 성(性)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⑦ “마담!”

“글쎄, 왜 자꾸만 이러느냐 말야?”

“마담……아이·러브·유!”

신춘호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쏘아보며, 문득 어릿광대같이 중얼거린다.(…)

‘에라! 한 번만 소원을 풀어주기로 할까?’

위험천만한 사상이건만, 오 여사가 그런 생각조차 먹어보는 순간, 돌연 방문 밖에서

“엄마— 이 집에 우리 엄마 왔어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자유부인』 117회)

⑧ 침대언저리가 다리에 부딪치는 바람에 오선영 여사는 제풀에 눈을 반짝 떠보다가,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몸과 마음의 준비는 벌써부터 다 되어 있지만, 휘황한 광선이 양심의 눈에 부시었던 것이다.

“불, 끄세요!”

오선영 여사는 무심중에 중얼거렸다.

“불을 꺼요?”

한태석이가 약간 불만한 어조로 물었다.

“꺼 주세요”

“그럼 끄죠”

팔을 들어, 전등 스위치를 막 끄려고 했을 그 순간이었다. 벼란간 벼락치는 소리로 문이 열리며, 누구인가 비호같이 방안으로 튀어들더니, 땃바람에 오선영 여사의 머리카락을 휘어 쥐고 우박같이 주먹을 내리족치면서(「자유부인」 193회)

⑦은 <오선영>이 <신춘호>의 방에서 춤을 추고 난 직후의 한 장면이다. <신춘호>의 고백과 유혹에 이끌려 ‘에라! 한 번만 소원을 풀어주기로 할까?’ 하고 마음먹으며 막 넘어가려 할 때다. 소원을 풀어준다는 것을 빙자하여 사실 <오선영>은 <신춘호>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려고 작정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선영>의 아들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탈선은 거기서 그치게 된다. 이는 다분히 독자를 의식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대목에서는 이야기를 더 끌고 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전개된 ⑧에서는 작가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점이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⑧의 장면은 <오선영>의 탈선이 최고조로 진행된 상태다. 통행금지 시간에 호텔에 들어간 남녀다. 더구나 그들은 어찌다가 피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던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은 이 대목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한태석>의 부인인 <이월선>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이상의 관계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작가가 <오선영>의 육체만은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다. 정비석의 다른 소설에 비해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남녀간의 육체관계가 그다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부분 역시 이 소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본다. 1950년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다수의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소설임을 감안하여 작가는 가정부인인 <오선영>의 탈선을 어느 정도의 선까지만 이르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비석의 소설창작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 作品이 內包하고 있는 社會的 倫理觀에 있어서도 新聞小説은 純文藝 長篇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文學이란 항상 낡은 것을 止揚하고 새 것을

探究하는 精神的 所行인 만큼 純文學 作品에 있어서는 讀者大衆이야 歡迎하거나 말거나 作者 自身の 主觀에 依하여 새로운 倫理觀을 얼마든지 強力히 主要해도 相關없지만, 新聞小説은 直接 間接으로 讀者와의 妥協을 全然 無視할 수가 없기 때문에 倫理觀에 있어서도 多分히 既成 倫理를 尊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⁷⁾

작가의 주관에 따라 새로운 윤리관을 강하게 주장해도 상관없는 순문에 장편과는 달리 신문소설은 독자와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이 「자유부인」 창작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화의 일반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

「자유부인」은 이처럼 독자의 엄청난 관심 속에 그들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으면서 씌어진 작품이다. 독자의 참여와 개입으로, 독자와 타협하며 씌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작장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²⁸⁾

「푸른 날개」와 「자유부인」을 통해 확인했듯이 1950년대 신문소설은 독자의 참여에 따라 작품의 내용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던 신문소설일수록 독자의 참여가 더욱 많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신문사측에서도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사전에 연재 예고²⁹⁾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요, 연재 중간중간에 지난 호까지 연재된 내용의 줄거리를 게재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연재가 끝난 뒤에는 독자들의 반응을 싣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1954년에 창간하여 흥미 있는 기획과 편집으로 주목을 받던 신생신문 「한국일보」는 연재가 끝날 즈음에 독자들로부터 ‘독자평’·‘독후평’을 공모하여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한국일보』 1955.8.9~1956.4.23, 245회 연재)에 대한 ‘독자평(讀者評)’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문소설—대화는 매력적, 구상에도 여운, 「운명에 굴복했고 승리했다—예상에 반(反)하여 매일마다

27)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문성당, 1957), 224쪽.

28) 김동운,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정비석의 ‘자유부인’론」, 『국문학보』제14집(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71~78쪽.

29) 신문소설의 연재 예고는 ‘소개말(신문 편집자의 글)’, ‘작가의 말’(작가가 작품의 방향 등에 대해 쓰는 글), ‘화가의 말’(삽화를 그리는 화가가 쓰는 글)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새 자극, 「개성과 동기가 대체로 빈약—능숙한 조정은 현대에 부합, 「안일을 버린 남자들에 호감—‘박인·클럽’은 본받을 씨스텝, 「자미있으나 역작은 아니다—쓰지도 달지도 맵지도 않아, 「우리 문단의 커다란 수확—수준을 혁명적으로 높였다, 「전문가 입장서 경탄—발전소를 말하는 작자」 등이 실렸다.³⁰⁾ 그리고 정비석의 「낭만열차」(『한국일보』 1956.4.25~11.24, 201회 연재)에 대한 ‘독자들의 독후평(讀後評)’에는 「낭만열차가 달린 방향은?—재미있었으나 승객은 어리둥절, 「흥미로우며 실리적—‘난심’의 꿈을 갖고 싶어, 「‘권달수’와 ‘채옥’을 증오—‘참되게 살자’는 교훈 감득(感得), 「필연적 동기 없어 무기력—해피·앤드 아닌 것은 하나의 여유, 「농촌으로 파고드세요—대학교수의 연애는 고만하시고, 「시대성을 반영—끝을 맺으니 섭섭」 등의 다양한 반응이 게재되어 있다.³¹⁾ 이런 점들은 신문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획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에 연재된 신문소설은 독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던 것이다.

4. 맺 음 말

이 연구에서 필자는 1950년대 신문소설을 올바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에는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신문지면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신문의 상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점들은 신문소설의 독자 형성 요인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둘째, 1950년대 독자들은 신문소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신문소설은 단행본 소설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음은 물론이요, 당시 인기가 급상승하던 영화보다도 폭넓게 향유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독자층에 관한 것이다. 중산층 여성독자들이나 젊은층(대학생 등)들이 신문소설의 주된 독자들이었으며, 대학교수 등 엘리트들도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독자들의 참여가 작품의 내용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30) 『한국일보』(1956.5.7).

31) 『한국일보』(1956.12.2).

김말봉의 「푸른 날개」의 경우 독자들의 항의와 요구에 따라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작품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다섯째, 정비석의 「자유부인」에서도 독자 참여로 인해 작품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 예를 볼 수 있었다. 지상 논쟁과 독자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 작품이 연재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으면서 씌어진 흔적이 대학교수에 대한 태도 변화나 윤리적 측면의 고려 등에서 확인되었다.

여섯째, 신문사 측에서도 독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사전에 연재 예고를 대대적으로 함은 물론이요, 소설 연재 도중에 지난 호까지의 줄거리를 게재해 주었는가 하면, 연재가 끝난 뒤에는 독자들의 반응을 싣는 경우도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 권희돈. 『소설의 빈자리 채워 읽기』. 양문각, 1993.
- 김내성. 「신문소설의 형식과 그 본질」. 『현대문학』, 1957.2.
-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정비석의 ‘자유부인’ 론」. 『국문학보』제 14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9.
- 김말봉. 「푸른 날개」. 『조선일보』, 1954.3.26~9.13.
- 김영덕. 「신문소설과 윤리」. 『자유문학』, 1959.7.
- 김우중. 「신문소설의 사회적 영향—작가의 태도가 문제」. 『동아일보』, 1959.8.1.
-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 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 『한국일보』, 1955.8.9~1956.4.23.
- 백 철.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 『대학신문』, 1954.3.29.
-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 서재관. 「신문소설에 불평 있다—애정·애욕도 깊이 탐색하라」. 『현대』, 1958.4.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7.
- 이무영. 「계절의 풍속도」. 『동아일보』, 1958.11.1~1959.7.15.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6.
- 정비석. 「자유부인」. 『서울신문』, 1954.1.1~8.6.
- . 「탈선적 시비를 박함」. 『서울신문』, 1954.3.11.
- . 「낭만열차」. 『한국일보』, 1956.4.25~11.24.
- . 『소설작법』. 문성당, 1957.
- . 「자유부인」. 고려원, 1996.
- 정비석·황산덕. 「그때와 오늘, 세태 30년을 말한다」. 『서울신문』, 1984.11.22.
- 정태용. 「신문소설의 새로운 영역」. 『사상계』, 1960.4.
-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의 유형론』. 집문당, 1999.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7.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상·하)』. 국학자료원, 1999.

홍순엽.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 『서울신문』, 1954. 3. 21.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 1954. 3. 1.

———.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 『서울신문』, 1954. 3. 14.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H.R. 야우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장영태 역). 문학과지성사, 1983.

기타 신문자료 등.